벽암 스님은

참선 · 계행 후학 모범



불교계에 정화의 열풍이 불 당시 벽암 스님은 '맹장(猛將) 중에 맹장'이었다는 주변 스님들의 말씀이 있어, 신원사를 향할 때까지만 해도 호랑이 같은 모습을 연상했었다. 그러나 스님의 뵙고 나니 세간의 나도는 말이 잘못됐음을 알 수 있었다. 스님은 낯설음과 긴장을 녹여줄 수 있는 따뜻한 인품의 스승 그 자체였다.

벽암 스님은 1924년 경남 남해에서 태어나, 일본 관서공업전문대에서 공학(工學)을 공부했다. 그 후 스님은 범어사와 수덕사를 우연히 방문하게 되었는데, 이 일이 스님이 출가를 결심하는 단초가 되었다.

수덕사에서 6년 간 공부하다가, 1947년 적음 스님을 은사로, 매명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받았다. 이후 서울 호국사 역경원 대교과를 수료하고, 조계종 총무원 교무부장, 동국학원 이사, 선학원 원장 및 이사장,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조계종 종정 직무대행 등을 거쳐 현재 조계종 원로회의 의원을 맡고 있다.

벽암 스님은 현재 공주 계룡면 양회리에 있는 신원사 벽수선원에 주석하며, 대중에게는 소탈함과 따뜻함으로, 자신에게는 엄격한 참선과 계행으로, 수행자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몸소 실천하고 있다.



◇'스님만의 도량석'. 거동이 불편하심에도 스님은 선방을 나고 들때마다 대웅전전각을 향해 일일히 목례로 참배하신다.

팔정도 따라 살면 부처님처럼 사는 길

달으면 부처이고, 미혹하면 중생인데 언제나 수행해야지요. 나이 먹었다고 수행자의 본분을 놓아버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하게 볼 일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부처님과 같은 맑은 마음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의 근본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마음을 알면 모든 문제의 근원을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게 가능하다.

스님은 마음을 보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묵언(默言)'을 권한다. 스님은 찾아오는 사람과 말하기를 아끼지 않지만, 스스로 대중 앞에 나서서 법문하기를 싫어한다. "그 자리에 서면 스스로 실생활에 옮기지 못하는 것을 말하기가 쉽고 그것은 죽은 법문이나 마찬가지"라는 이유에서다.

말보다는 실천이 더욱 중요하고, 실천을 보일 수 있는 자리라면 마다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스님은 언제나 벽수선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납자들에게 자상한 가르침과 공부 점검을 해주신다. 안거가 시작되면 하루도 빠짐없이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선원의 문을 열고 들어서 후학들에게 용맹정진을 몸소 보여주신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신원사에는 외국인 납자들이 많았다.

〈만행, 하바드에서 화계사까지〉라는 책으로 일반인들에게까지도 잘 알려진 현각 스님도 신원사에서 동안거를 난 적이 있다. 현각 스님은 그 때를 회상하며 "나는 신원사에서 살면서 한국 스님들에 대한 존경심을 새록새록 가지게 되었다. 수행은 죽음을 앞에 두고 해야 한다는 옛 선사의 가르침이 그대로 보였기 때문이다. 특히 벽암 스님이 고령에도 불구하고 동안거 내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참선 수행에 참석한 게 가장 인상 깊었다"고 말할 정도로 벽암스님은 몸소 모범을 보이신 것.

벽암 스님은 또 계행(戒行)을 늘 강조한다. "청정한 몸에서 청정한 정신이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불교 안팎에서 남을 헐뜯는 말들이 종종 나오는데, 우선 자신의 몸과 마음을 먼저 살펴야 하고 그 다음으로 남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님이 지키는 계율의 범위가 얼마나 섬세한 부분에까지 미쳐 있는지를 알게 하는 재미있는 일화가 있다.

스님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화장실에서 이빨을 닦은 후 물로 입가심하면서 서서 하지말고 앉아서 하라"고 강조한다. 왜냐하면 입가심하고 나서 물 뱉을 때 서서 하면 옆 사람에게 물이 튀게 되고, 또 미물에게는 서서 뱉는 물이 폭포수나 다름없으니까 조심하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자신을 다스리는 철저한 수행관은, 스님이 지금까지 법문집 한 권 내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범부의 생각에, 수행이 깊어지면 그 경지를 풀어서 가르침이 될만한 말을 모아 펴내는 일은 당연하다. 그러나 스님은 "스스로 체득할 수밖에 없는 경계를 어찌 말과 글로써 전하려 하겠는가"라며 그것을 극구 반대한다.

수행자라면 모름지기 모든 행동과 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가르침이 겠지만, 한날 범부에게는 스님의 경계를 엿보고 싶을 뿐이다. 그래 스님에게 매달리니 "세상의 일이라는 게 혼자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좋은 일을 해서 개인적으로나 이 사회를 위해서나 선업(善業)을 쌓아야 합니다. 업장소멸을 위해 우리 모두 매일 참회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라면서 "날씨가 추워지고 있어요. 이제 들어갑시다"며 선방으로 발걸음을 재촉하셨다.

걸으시다가 대웅전을 향해 스님이 수차례 목례를 했다. 스님은 언제나 대웅전과 중악단 등 신원사 곳곳의 전각을 향해 수십차례 목례로 참배를 하시는 것이 일과이다.

서로 몸과 마음 낮추면 용서도 화해도 가능

'스님만의 도량석'을 끝내셨는지, 벽암 스님이 선방 문 앞으로 다가오셨다. 기자를 보고 빙그레 웃으시는 스님에게 "사람들은 살면서 많은 그만을 하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나는 길이 없겠습니까"라고 여쭈었다.

"아직도 멀었어요. 예전에 효봉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알았으면 스스로 분명한 법이다'라고 말이죠. 여기에 해답이 있지 않겠습니까"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 아닌 듯하다. 이미 부처님과 역대 조사들이 설해놓은 방편이 수백 수천의 경전이고 어록인데, 행하지 않고 예까지 와서 길을 묻는다는 호통같이 들렸다.

선방에 들어가시는 벽암 스님을 향해 합장 반배하고나서 묘봉 스님은 큰 스님의 '호통'을 이렇게 설명하 주었다.

"그렇다고 좌절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또 세상 사람이 얘기하는 숙명론이니 하는 것처럼 정해진 이치대로 불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은 매순간 선과 악이 교차합니다. 우주만물 변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만 사람의 마음이 가장 변화무쌍합니다. 선업과 악업을 무수하게 쌓으니까요. 따라서 '잘 사는 길'이란 인과를 믿고 인과가 무서운 것을 아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서 고생스럽다고 해서 잘못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지금의 상황이 어떤 인연으로 초래된 것이고 그 결과 이러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고 헤아리는 그 생각과 자세가 중요합니다."

지혜는 지식과 다르다. 많이 배워서 얻는 지식이 쌓였다고 해서 지혜로워지는 것은 아니다. 지혜는 바로 인과를 살피는 혜안인 셈이다. 지혜가 있는 이는 전생의 악업으로 해서 고통과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풀어나가야 하는 길을 스스로 찾을 수 있다. 그래서 힘든 삶도 가닥을 잡아가며 해결할 수 있다.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삿된 것을 끝없이 따라다닌다는 말이다.

요즘 신원사를 찾는 불자들이 부쩍 늘고 있다고 한다. 벽암 스님의 삶을 조금이라도 엿보는 불자라면 환희심을 느낄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이 신원사를 다시 찾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다.

글=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정운스님의
스님이야기
일진스님

내가 처음 일진스님을 만난 것은 운문승가대학 입학 날이다. 그때 스님은 동국대를 졸업하고 최고의 경반인 〈화엄경〉의 중강 소임을 맡고 있었는데 꽃꽂이, 붓글씨 등 다방면에 뛰어난 재주가 있어 그야말로 '운문'을 가득 채우는 것 같았다. 어쩜 저리도 다재 다능한 스님이 계실까 할 정도로 그때 내 눈에 비친 일진스님은 참으로 고왔고 또 여성스러움 그대로였다.

운문승가대학장 명성스님이 그 많은 제자중 유독 일진스님을 더 아끼시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일진스님은 학교를 졸업하고 후학을 위해 운문사로 내려 온 뒤로 몸과 마음을 온통 바쳐 학장스님 곁에서 손발이 되어드리고 있다. 어른을 모신다는 것, 그리고 그 어른의 모든 면을 채워드린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니다. 그것은 자기 희생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스승을 하늘같이 받들고, 스승의 가르침을 한 번도 거절하는 법이 없고,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을 정도로 지극정성으로 스승을 모셨던 제자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같은 건물에 있으면서도 불쑥 스승의 방을 노크하여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찾아뵈어도 되느냐고 여쭈어 보고 그리하라고 하면 찾아뵙지만, 기다리라고 하면 문전에서 스승이 불러줄 때까지 기다렸다가 뵙는 그

어른 제대로 모시기 '대표적'
'운문' 하면 생각나는 스님

제자의 모습을 보고, 그 제자의 제자도 자신의 스승을 그렇게 깍듯이 모셨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제자를 가르친 모습인데 대우받고자 원한다고 모든 제자가 다 그 스승을 대우해주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 제자 또한 제자에게 말보다도 손수 스승을 깍듯이 모셔 왔기 때문에 무언 중에 이루어진 교육일 것이다. 그런데 옛날 이야기가 아닌, 요즈음도 이런 스승과 제자가 존재하니 얼마나 본받을만한 이야기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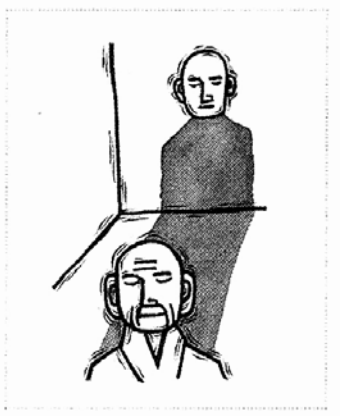
일진스님도 우리처럼 똑같은 학장스님의 제자이다. 허나 스승을 모시는 마음은 우리와 다르다. 강단에서 강의를 하여 스승에게 배운 학문을 전승시키는 것만이 스승의 뜻을 받드는 것이 아니다. 얼마만큼 스승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뜻을 따르고 실천하느냐 하는 것이다.

많은 제자들이 일정 기간의 교육을 마치고 자기의 본분을 찾아 떠날 때 스승의 가르침을 자기 생활 전부에 쏟아 부어 넣지 않는 것이 대부분 제자들의 습성이다. 나 홀로 배우고 닦아서 성장한 것으로 착각하며 망각하고 살기 일쑤인데 일진스님은 달랐다.

'운문'을 떠나지 않고, 많은 후학들이 마음 편히 졸업을 하고 그리고 훗날 찾아가도 낯설지 않게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 내고 있으면서, 스승 곁에서 스승이 가장 편하도록 그 뜻을 받들며 살아가고 있는, 후학들에게 산교육의 현장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운문인들은 말한다. 어쩌다 운문사에 가면 모두가 낯설고 어색한데 그래도 낯익은 일진스님이 학장스님 곁에서, 선 · 후배들을 기억하고 챙겨주니 참으로 고맙고 잠깐이나마 마음 편히 다녀 올 수 있다고.

일진스님은 늘 학장스님을 가까이에서 모시면서도 한번도 그분의 뜻을 거역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하루종일 운력을 하고, 강의를 하고, 힘든 일과를 보낸 날일지라도 한밤중에 용무가 있어 스님께서 찾으시면 모든 일 제쳐 놓고 스님 곁으로 달려간다. 그리고 그 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지 않아도 먼저 헤아리고 챙겨드린다. 도량을 손질하는 일, 학문을 연구하는 일, 그밖의 크고 작은 일들을 학장스님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큰 도우미' 역할을 한다. 그렇다고 개인 일을 게으름 피우지 않는다.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도 부단히 노력을 한다. 강의를 하면서 또 소



임을 맡으면서 틈틈이 포교를 할 곳이 있으면 병원이든 군법당이든 어디든지 찾아다니고, 학인들에게 외전으로 일어를 가르친다. 또 사찰의 많은 행사에 직접 꽃꽂이도 한다.

내가 어린 시절을 보낸 운문의 도량에서 큰 대들보 역할로 운문의 많은 학인들을 보내고 맞아들이는 일에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는 일진 스님이 있기에 운문의 도량은 늘 잘 여물어져 있고, 언제 달려가도 어머니품속 같이 따뜻하게 느껴진다. 내가 운문사를 떠나온 뒤로 일진스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아마 열 손가락으로도 꼽히지 않지만 함께 살면서 느낀 정이 늘 내 가슴에 살아있기 때문에 항상 그리워하는 스님이다.

그리움은 그리움으로 묻어야지 그것을 꺼내어 모양을 다듬고 수다스럽게 만들지 말아야 하는 것이 수행자가 살아가는 모습일 터지만, 참으로 그리운 날 나는 일상을 띨쳐버리고 그 모양을 만들기 위해 '운문'으로 달려갈지도 모르겠다.

'운문'에 가면 나를 기억해주고, 차 한잔의 여유를 즐기도록 배려해 줄 나의 소중한 선배님이 늘 계시다는 것 그 자체 만으로도 얼마나 흐뭇한지….

세원사 주지

法華三部經講院

▶ 男 · 女 통신반 募集 ◀

1. 募集期間 ■ 전기 : 1월 5일 ~ 2월 15일 (기간엄수)
2. 募集課程 ■ 佛經漢字 한문 교육과
3. 入學資格 ■ 불교 최고의 경전을 연구 하고자 하는 자 ■ 불교 교육자로 새로운 창업을 하고자 하는 자
4. 教育科目 ■ 무량의경 (漢文本) ■ 묘법연화경 (漢文本) ■ 관. 보현보살 행법경 (漢文本) ■ 특강을 통해 모든 경전 비교연구
5. 教育期間 ■ 3년(6학기) 통신반.출강반 동일
6. 教育方法 ■ 매주교재와 강의테이프 우송 ■ 월1회 대구 강의실에서 특강
7. 卒業惠擇 ■ 수학증서 수여 ■ 교직자 자격증 수여(심사후) ■ 법화수행교육원 개원시 적극 지원(심사후) ■ 평생연구과정 입학자격부여(심사후)



崔 光 永 책임교수

자세한 입학 안내서는 엽서로 청구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동대구 우체국 사서함 41호 (우편번호:701-600)

法華三部經講院
053-952-8711 / 017-501-8711

제 5 기생

원봉불교 어산의식 교육원

본 교육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모집 합니다.

교육과정	교 육 내 용
기본과정	▷ 모집인원 : ○○명 ▷ 자 격 : 제한없음 ▷ 기 간 : 3개월 ▷ 준 비 물 : 목탁, 요령(별도구입) ▷ 교육내용 : ① 기본예의 ② 천수경 ③ 행선축원 ④ 예불 ⑤ 목탁 치는 법 ⑥ 요령
중급과정	▷ 모집인원 : ○○명 ▷ 자 격 : 기본과정 수료자 및 동등 이상인 자. ▷ 준 비 물 : 별도지참 ▷ 기 간 : 1년 ▷ 교육내용 : ① 상주권공 ② 대령관욕 ③ 권공 ④ 지장청 ⑤ 시식(관음시식, 진시식, 구빙시식) 천수북, 법성게북, 장엄염불, 진언쇄줄 등
연구과정	▷ 모집인원 : ○○명 ▷ 자 격 : 중급과정 수료자 및 동등 이상인 자. ▷ 기 간 : 1년 ▷ 준 비 물 : 별도지참 ▷ 교육내용 : ① 의식을 실습하고, 각종행사에 동참 할 수있음. ② 예수 제의식 ③ 천수바라 사다라니 바라 나비춤등

※ 제출서류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1부. ② 반명함판 사진 1매 ③ 주민등록등본 1부.
※ 일 시 : 2001년 2월 20일(음력 1월 28일 화요일)오전 9시 30분
※ 장 소 : 밀양시 초동면 오방리 222번지 작약산 광제암 ☎ 055)391-1274 핸드폰 011-883-4404
※ 기 타 : ① 중급 및 연구과정 이수자에게 본 교육원 수료증 수여 함. ②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교육원 사무실로 문의 바람. ③ 교육기간 : 기본 및 중급과정 오전 9시~12시 30분

작약산 광제암 주지 원 봉

동국대학교
불교 대학원 제5기 동문의 밤

산사의 하이얀 눈을 비집고 이름모를 꽃이 따사한 생명의 햇살에 안기여 꿈을 꾸는 계절, 동문들의 모습이 하나둘 스쳐 글을 빌어 소식을 전합니다. 언제 왔다 갔는지도 모르는 삶의 질곡들이 내게 남아있는 세월을 밀고있는 가운데 지난 시간 소중한 인연을 그리워하며 동문들을 뵙고 싶어합니다. 꼭 한번 참석하여 좋은 인연의 시간을 주시길 기원합니다.

안 건
■ 회장 및 임원선거 건
■ 전임 회장 및 임원인수의 건

바쁘신 가운데도 꼭 참석하시여 동문들의 화합의 장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날짜 : 불기 2545년 (서기 2001년) 2月 20日 (火요일)
■ 시간 : 오후 6時
청진장 (종로구청 앞)

동국대 불교대학원 제5기 동문회추진위원장 도성스님
동국대 불교대학원 제5기 동문회추진부위원장 법안스님

혜거스님의
경전강좌 안내

해거스님께서는 다년간 불교라디오방송에서 자비의 전화상담과 경전강의를 하셨습니다. 본 선원에서는 신사년을 맞아 새로운 경전강좌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많은 동참바랍니다.

유식 삼십송
강의 일시 : 3월 2일 부터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불교 교리
강의 일시 : 3월 7일 부터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 3개월간 회비 6만원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선원

TEL : 02) 445-8484 FAX : 02) 445-8043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5단지 186-3